

# 민주 대선 경선 ‘선거인단 확보’ 전쟁

### 전국 최대 150만명... 광주·전남 15만~18만명 완전 국민경선제 ‘대선행 티켓’ 확보에 결정적 불·탈법에 민심 왜곡 등 각종 부작용 우려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단 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대선 후보 경선이 사실상 완전국민경선제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선거인단 확보는 ‘대선행 티켓’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에서는 순회 경선 일정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선거인단 모집 목표를 활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인단 규모=이번 대선 경선의 선거인단 규모는 100만~150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출범과 함께 연초에 실

시전 정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은 당원과 일반 국민을 합해 78만명이 넘었으며 4·11 총선에서의 국민경선 선거인단은 103만여명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감안하면 선거인단 규모가 최소한 100만명을 넘어야 하는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아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교수가 장 밖에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경선이 150만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흥행을 일으킬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규모가 100만명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별다른 흥행 요소가 없었던 민주당의 지난 6·9 전당대회의 선거인단 규모는 30만2000여명에 불과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 경선에서의 광주·전남지역 선거인단 규모를 15만~18만명 정도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의 광주·전남지역 국민경선 선거인단 규모를 감안하면 각 지역구 별로 1만명 내외의 선거인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족한 대선 캠프=각 대선주자 캠프에서는 지역별로 선거인단 모집 목표를 정하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당장, 각 후보 캠프에서는 지역 조직이 탄탄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타겟으로 삼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선거인단 모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경선 판도가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이기도 일단 초반 판세가 드러나는 컷-오프 이후 결정하겠다는 ‘눈치보기’도 엿보인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에서는 컷-오프 이전까지 조직을 총동원, 지인 찾기 등을 통해 선거인단 등록이 가능한 명단 작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선거인단 등록 시작과 함께 20명에서 10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모을 수 있는 하루 조직책 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부작용 우려도=각 후보 캠프의 선거인단 모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민심 왜곡 등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대선 경선은 전국 선거지대 각 지역별로 순회 경선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지난 총선에서 나타났던 각종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후보 캠프의 선거인단 모집 경쟁이 격해지면서 각종 불법행위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경선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선거인단 모집을 놓고 각 후보 캠프에서 치열한 일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경선이 완전국민경선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다 선거인단 규모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어서 민심이 왜곡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첫 TV토론 “내가 정권교체 책임자”

### 민주, 예비 경선 돌입

민주통합당은 23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예비경선 후보자 공명선거실천협약식을 시작으로 5명의 후보 중 본경선에 진출할 5명을 압축하기 위한 공식 경선 일정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종합편성채널 MBN 토론회를 시작으로 27일까지 5차례 TV토론회를 개최해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검증한다. 첫 TV토론회는 ‘내가 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후보자의 변을 시작으로 자유토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후보 간 자유토론에서는 문재인·손학규 후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문 후보는 손 후보에게 “제가 후보가 되면 ‘저런 일이 있는 삶’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손 후보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를 누를 수 있는 제가 후보가 될 것”이라고 답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반대로 손 후보는 문 후보에게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정권에 정부가 이양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한 것이 아직 유효하냐”고 물었고 이에 문 후보는 “정권재창출 실패는 뼈 아픈다. 하지만, 선거에 졌다고 실패한 정부



23일 서울 중구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경태, 정세균, 김정길, 김영환, 김두관, 문재인, 손학규, 박준영 후보. /연합뉴스

는 아니다. 참여정부는 총체적으로 성공한 정부였다”고 답했다. 박준영 후보는 문 후보에게 “지난 대선 대패는 역사상 가장 큰 표차의 패배였다. 참여정부는 민주당과의 분당, 한미FTA 추진, 대연정 제안, 대북송금 특검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비판적 질문을 했다. 이에 문 후보는 “대연정 제안은 오래전부터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으며 한미FTA

추진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열린우리당의 분당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대북송금 특검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샀지만 당시는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조경태 후보는 4·11 총선 당시 ‘나동강 벨트’ 실패의 원인을 묻는 박 후보의 질문에 대해 “더 많은 의식을 차질 수 있었는데 지난 4년간 땀 흘렸던 지역위원장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

지 않는 부산 친노의 전횡, 패권주의에서 나온 패착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후보는 “영남 출신이(민주당) 후보 8명 중 4명이나 돼서 영남이 과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영환 후보는 “지난 50년간 DJ 정부 5년을 빼고 영남 정권이 11번 집권했다”, 김두관 후보는 “영남의 지역주의는 패권적 지역주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준영 지사 대선 출마 도의원 43명 지지 표명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39명과 무소속 도의원 4명은 23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준영 전남지사 대통령 출마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박준영 지사는 도지사로서 능력이 검증된 만큼 민주당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책임자”라고 밝혔다. 윤석석 의회운영위원장은 “박 지사 개인에 대한 지지의 뜻과 함께 민주당 안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소속 도의원 5명과 무소속 도의원 2명은 박 지사의 출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열린 ‘제1기 지방분권 아카데미’ 기조강연에서 “최근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개정되는 헌법에 반드시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중앙에 예측될 수밖에 없고 창의력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특별 전시展 임직순 작 ‘모자를 쓴 소녀’

어찌지 낫는다. 자신도 모르게 앉자마자 다리를 꼬는 여성들이 많아서일까. 작품 속 파란 원피스와 청모자는 다소곳하면서 단아한 분위기를 한결 도드라지게 한다. 화폭의 대각선을 차지하며 앉아 있는 소녀 주변으로 석류나무, 장미, 수국, 맨드라미, 채송화 등의 화려함과 넘치는 생명력이 화폭을 더욱 풍성하게 채운다. ‘모자를 쓴 소녀’는 종교 미술교과서 도록으로 익숙한 임직순 화백(1921~1996)의 대표작.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임 화백이 조선대 교수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닌, 아름다움에 가려 보이지 않

## 아름다움에 가려진 생명의 힘

로 있던 시절, 동구 장동 자택에서 1970년 그린 것으로, 현대미술 관련 논문에서 자주 거론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임 화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인물, 풍경, 정물 등을 소재로 선택하면서도 작가만의 독특한 화풍을 펼쳐왔다. 인물 중에서는 여인, 여인 가운데서도 ‘소녀상’을 즐겼다. 그러면서

는 생명의 힘을 포착해냈다는 게 미술계 평가다. 임 화백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일본미술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해 국전(1957년)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1959년 국전 추천작가로 소재로 선택하면서도 작가만의 독특한 화풍을 펼쳐왔다. 인물 중에서는 여인, 여인 가운데서도 ‘소녀상’을 즐겼다. 그러면서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합동점) 상일로 입구: 022276-056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입: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약) 입: 02733-0220 송파점(선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양점(구.사리현역) 입: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입: 032617-5110 수원점(남문) 입: 031821-6655 고양점(백산사거리2001) 서울점 입: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입: 03169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입: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입: 031378-4183 부천점(부천역) 입: 032329-4400 남양주점(평내) 호평점 입: 0718823-9803 부산 서면점(서면역) 입: 051818-8800 서면5점 818-0016 남포점(남포역) 입: 051256-7200 울산 울진점(울진로) 입: 0523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입: 055291-0300 진주점(진주역) 입: 055745-9870 대구 동문점(동문역) 입: 053425-4440 삼척점(삼척역) 입: 053425-1511 남일점(남일역) 입: 053425-7575 경북 포항점(포항역) 입: 054044-5110 안동점(안동역) 입: 054659-2288 광주 광주점(광주역) 입: 052225-5110 광주점(백운역) 입: 052651-4477 전남 순천시점(순천시) 입: 061702-8945 전북 전주점(전주역) 입: 063225-5722 군산점(군산역) 입: 063446-9188 익산점(익산역) 입: 063838-6200 남원점(남원역) 입: 063832-8228 대전 대전점(대전역) 입: 042225-5110 대전점(충촌역) 입: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입: 042225-6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입: 041553-2888 광주점(광주역) 입: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입: 043225-5110 대전점(대전역) 입: 043222-1177-8 충청점(충청역) 입: 043652-1414 강원 강릉점(강릉역) 입: 033647-0588 충청점(충청역) 입: 033253-5110 제주 제주점(제주역) 입: 06470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CE마크 인증, GMP 의료기기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심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북문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	--------------------------------------	-----------------------------------